



전문 숲가이드와 함께 즐기는 하이원리조트의 HAO트레킹(왼쪽), 로미지안 가든 햇빛치유장에서는 오대천 동강, 조양강 등 세 물줄기가 만나는 세물머리를 내려다보며 요가와 명상을 할 수 있다.

금강송 숲 거닐며 디지털 디톡스 어때요

로미지안, 햇빛치유장서 명상·요가로 힐링 금강송 에코리움,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 눈길 하이원, HAO트레킹·야생화 염색 체험 운영

‘위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 요즘은 나들이나 여행도 달라졌다. 북적이는 곳보다는 한적한 곳을 선호하고, 기금적 가족이나 나 혼자만의 공간을 찾는다. 더불어 여러 곳에서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며 여유와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여행을 통한 새로운 자극보다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대신 위로와 힐링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웰니스관광이다.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 관광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관광’을 말한다. 관광산업의 여러 분야 중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더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정부도 코로나 종식 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한국형 웰니스관광 육성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형 웰니스 추천관광지로 선정된 강원과 경북의 네 곳을 방문했다.

●가슴 탁 트이는 전망...로미지안 가든

‘정선의 알프스’라 불리는 가리왕산 화봉 550고지에 있는 로미지안 가든에 들어서면 우선 “경치, 참 시원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 삼림을 테마로 한 힐링 관광 명소들은 대부분 숲을 중심으로 오밀조밀하게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로미지안 가든은 33만579m²에 달하는 부지에 23개 힐링 테마 조형물과 5개 트레킹 코스를 넓찍하게 배치했다. 로미지안이 자랑하는 시원한 풍광을 느

끼는 데는 햇빛치유장과 삼합수대가 제격이다. 동쪽 산자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햇빛치유장은 SNS 인증샷으로도 최고다.

치유장 아래로 오대천, 동강, 조양강 등이 하나로 합쳐지는 세물머리가 보이는데 삼합수대 전망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사람 얼굴만한 커다란 꽃봉오리가 풍성하게 피어있는 온실 베고니아 하우스도 필수 방문코스다.

●TV·인터넷 없이 쉬자...금강송 에코리움

경북 울진의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에 위치한 힐링공간이다. 체류형 산림휴양시설로 금강송테마전시관, 금강송치유센터, 수련동, 황토찜질방, 스파, 유르트, 금강송숲길탐방로 등을 갖추고 있다. 각종 요가나 명상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여타 웰니스 관광시설과 비슷하지만 수련동이라 불리는 숙박시설이 독특하다.

금강송숲 비탈길을 따라 조성한 숙박시설의 내부는 나무로 만들어 은은한 향기와 눈을 편안하게 하는 질감이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이곳 객실에는 TV나 인터넷(wi-fi)이 없다. 얼마 전 중계기를 달기 전까지는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머무는 동안 수련동에서 휴대전화를 잠시 꺼두면 전자기기에서 해방되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할 수 있다. 식당과 체험시설이 있는 금강송 치유센터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하이원HAO웰니스와 파크로리조트

웰니스 콘텐츠는 기존 리조트들도 미래 전략상품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테마다. 정선의 하이원리조트와 파크로리조트가 대표적이다. 하이원리조트는 ‘HAO(High1 Activity Organizer) 웰니스’란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쿠아 요가부터 케렌시아 요가, 명상과 꽃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합백산과 운탄고도라는 트레



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인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이 자랑하는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위 사진)과 파크로리조트의 명물 중 하나인 디톡스 주스.

킹 명소에 리조트가 위치한 장점을 살려 트레킹을 하면서 힐링과 명상을 하는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색이다. 야생꽃을 따서 수건에 물을 들이는 염색체험 등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이 꽤 재미있다.

파크로리조트 앤 웰니스는 개관 때부터 본격적인 웰니스 휴양을 표방했던 리조트다. 로비라운지에 들어서면 요란한 치장을 배제한 젠 스타일의 담담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로비 외에 리조트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휴양을 하기에 좋다.

이곳 웰니스 프로그램은 고객 니즈에 맞춰 다양한 테마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명상&요가 프로그램 후 맛보는 디톡스 주스도 이곳의 명물이다.

정선·울진 | 글·사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미니멀하게 ‘캠핑닉’ 즐기세요” K2 ‘시그니처 캠핑 컬렉션’ 출시

텐트·테이블 등 5종 구성...클래식한 디자인 매력

이번 주말엔 캠핑을 가볼까. 좋은 생각이다. 적당히 달아오른 태양, 쾌적함을 머금은 바람, 운이 좋으면 타프 위로 타닥타닥 리듬을 타는 빗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캠핑 간다고 이삿짐마냥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건 요즘 트렌드가 아니다. ‘캠핑닉(캠핑+피크닉)’, ‘미니멀’ 정도의 키워드는 기억해 두자.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출시한 ‘시그니처 캠핑 컬렉션’(사진)은 미니멀한 캠핑이나 피크닉에 최적화된 제품들로 구성됐다. 기능과 내구성은 기본, 여기에 미니멀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텐트, 테이블, 체어, 매트, 침낭 등 총 5종을 컬렉션에 담았다. 혼자 또는 최대 2~3명이 가볍게 떠나는 캠핑이나 피크닉에 딱이다. 가볍고 휴대가 편리하다.

‘글로리 텐트(39만 원)’는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2~3인용 텐트다.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앞뒤 모두 개방이 가능해 통기성이 뛰어나다. 입구 확장형 플라이 시트가 포함돼 공간 활용에도 좋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A형 텐트로 로즈골드 색상의 폴을 포인트로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글로리 멀티 테이블(7만5000원)’은 폴딩형 수납박스 겸 테이블로 박스 좌우에 손잡이가 있어 들고 나르기 좋다. 박스 양면을 전면 개방이 가능한 오픈형으로 설계해 박스 속 물건을 넣고 꺼내기 편하다. 견고한 원목 우드 상판을 적용했다.

‘글로리 로우체어(7만2000원)’는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원터치 접이식 캠핑 의자다. 가벼운 여행, 피크닉을 떠날 때에도 유용하다. 팔걸이 부분에 천연 목재를 사용해 감촉이 좋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린넨소재의 ‘글로리 린넨 매트(5만3000원)’와 가볍고 보온성이 우수한 ‘글로리 침낭(14만5000원)’도 선보였다. 두 제품 모두 다크차콜 색상으로 출시됐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28일(금)			
서울	90/30	인천	90/20	춘천	70/60	강릉	30/60
14	21	14	19	12	21	15	22
대전	80/90	전주	80/90	광주	60/60	대구	0/70
14	23	15	24	14	24	13	26
부산	0/60	창원	0/60	제주	0/0	지역	간수 현황 (오전/오후)
16	22	14	23	19	28	날씨	최저
최고	기온					최고기온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망종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오늘은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대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개미생과 대화하라.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리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관재수를 조심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관계가 지면 이롭다. 이성문제, 탈선을 조심하라.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합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 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부나 조연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삼가며, 건강에 많은 신경써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원숭이를 만나 자문을 구해라.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기량을 발휘하는 날이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신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원숭이가 귀인이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원숭이가 귀인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할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검정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사방이 위엄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조심하라. 반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